

東醫寶鑑 神門과 血門의 經穴 選擇에 대한 形象論的인 研究

박용환¹ · 송춘호² · 김경철¹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¹진단학교실 · 한의학연구소, ²경혈학교실 · 한의학연구소

The Study on 'Hyung-Sang' Theory of Acupuncture Points in Each Chapter on 'Shin' and 'Hyul' in Dong-Eui-Bo-Gam

Yong-Whan Park¹, Choon-Ho Song², Gyeong-Cheol Kim¹

Dept. of ¹Diagnostics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²Meridian & Acupoint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First, we analyze the contents of Dong-Eui-Bo-Gam. Second, from the view of the 'Hyung-Sang(形象:body form)' theory, we try to interpret the acupuncture points chosen in each chapter with a base on the contents of the book. **Methods** : We study on the on 'Hyung-Sang(形象: body form)' theory of acupuncture points in each chapter on 'Shin(神)' and 'Hyul(血)' in Dong-Eui-Bo-Gam(東醫寶鑑).

Results & Conclusions : The acupuncture points on epilepsy in 'Shin(神)' chapter are come from the purview of 'Shin(神)' type, fire-form, bird-form & the flushing and feeble of lower-abdomen. The acupuncture points on amnesia in 'Shin(神)' chapter are come from the purview of the powerful intestines and deficient heart-lung. The acupuncture points on dementia in 'Shin(神)' chapter are come more from the purview of 'Shin(神)' type, fire-form, bird-form. And the acupuncture points on sudden palpitation in 'Shin(神)' chapter are come from the purview of phlegen form syndromes. As the epistaxis and hematemesis on 'Hyul(血)' happen more the heat of fire than extravasated blood, the acupuncture points on epistaxis and hematemesis in 'Hyul(血)' chapter are come from the purview of 'Shin(神)' type, fire-form, bird-form and Yang-Myeong body. And as well as the acupuncture points on hematemesis in 'Hyul(血)' chapter are come possibly from the purview of 'Wind-form'. The acupuncture points on feeble hematemesis in 'Hyul(血)' chapter are come from the purview of 'The body form on the deficiency of medium energy'. And the acupuncture points on melena in 'Hyul(血)' chapter are come from the purview of 'Hyul(血)' type.

Key words : Shin(神), Hyul(血), Hyung-Sang(形象: body form), Dong-Eui-Bo-Gam(東醫寶鑑)

I. 緒 論

韓醫學의 치료방법은 크게 한약과 침구로 요약되며, 변증시치와 맥락을 함께 한다. 근대 한

국에서는 東武의 四象體質論 이래로 芝山의 形象醫學이 등장하여 맥진 문진 중심의 변증시치를 望診 중심으로 기술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변증시치의 정통을 되살리고 미래 발전적인 위상을 점하게 되었다.

본초와 방제는 변증시치와 형상진단을 기반으로

·교신저자: 김경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Tel. 051-850-8649,
Fax. 051-853-4036, E-mail : kimkc@deu.ac.kr

·접수 : 2004/06/12 ·수정 : 2004/09/20 ·채택 : 2004/12/17

로 하는 한방 임상에서 이론과 임상을 연계하여 크게 쓰임새가 있으나, 침 치료에 있어서는 形象論的인 연구와 임상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상체질에 따른 침구법^{1,2)}, 형상침법³⁾, 팔체질 침법⁴⁾ 등이 있으나, 기존 침법에 대한 비판적인 면이나 이론의 장황한 설명 그리고 五輸穴에서의 적용 한계를 가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변증과 형상진단의 활용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체계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저자는 形色脈證을合一하는 변증시치의 정통적인 정신에 의거하여 形象에 따른 經穴 선택과 자침 방법 연구의 일환으로 東醫寶鑑⁵⁾에 나타나는 經穴 選擇에 대하여 形象論的인 해석을 하고자 먼저 神門과 血門의 鍼灸 부분을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研究 方法

東醫寶鑑의 神門과 血門에 나타난 鍼灸 經穴 內容을 조사하여 증상별로 제시하고 이들 經穴의 特性⁶⁾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찰에서 동의보감 본문 내용을 분석하고 經穴 選擇의 過程을 논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形象論的인 입장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2. 研究 資料

神門

(1) 癲癇 晝發 治陽蹻(申脈), 夜發 治陰蹻(照海) 各灸二十七壯. 又灸百會 風池.

申脈: 太陽膀胱陽蹻脈之所生之處 陽蹻脈之交會穴十三鬼穴 疏表邪治風痰 寧神志舒筋脈

照海: 少陰腎 八脈交會穴- 陰蹻脈起始穴

痛經火熱 泄火少氣 清神志 利咽喉

百會: 督脈 手足三陽經與督脈之會穴 熄肝風 清神志 回陽固脫 舉陽氣下陷 清熱開竅

風池: 少陽膽手少陽三焦經與足少陽膽經與陽維脈與陽蹻脈之會穴 調氣血 祛風解表 疏邪清熱清頭開竅 明目 益聽 利機關

(2) 癰病 取鳩尾 後谿 涌泉 心俞 陽交 三里 大衝 間使 上腕.

鳩尾: 任脈 絡

後谿: 太陽小腸 輸 木 督脈交會 寧心安神 清熱利濕 通督脈 固表分

湧泉: 少陰腎 井 木 清腎熱 降陰火 寧神志 勞厥逆

心俞: 太陽膀胱 心俞 養心安營 清神寧志 調理氣血

陽交: 少陽膽 陽維脈之郄穴

足三里: 陽明胃合土 六腑下合穴四總穴 中風七處穴 理脾胃調中氣 和腸消滯祛風化濕 通調經絡 調和氣血 扶正培元 祛邪防病 強健脾胃

太衝: 厥陰肝 俞 土 原 清息肝火肝陽 疏泄下焦濕熱 舒肝理氣 通絡活血

間使: 厥陰心包 經 金 調心氣 清神志 和胃祛痰 通經治絡

上腕: 任脈 手太陽小腸與任脈之會穴 理脾胃 化痰濁 疏氣機 寧神志

(3) 癲狂 取豐隆 期門 溫溜 通谷 築賓 陽谷 後谿 陰谷. 又灸間使30壯(得效). 又灸天樞 100壯

豐隆: 陽明胃 絡 和胃氣 化痰濕 清神志

期門: 厥陰肝募 足厥陰肝經足太陰脾與陰維脈脈之會穴 祛血室邪熱 調半表半裏化痰消痞 平肝理氣

溫溜：陽明大腸 郄 清邪熱 理腸胃

足通谷：太陽膀胱 榮 水 消導經氣

築賓：少陰腎

陽谷：太陽小腸 經 火

後谿：太陽小腸 輸 木 督脈交會 寧心安神
清熱利濕 通督脈 固表分

陰谷：少陰腎 合 水 祛濕通洩 滋腎清熱
疏泄厥氣 利導下焦

(4) 健忘 取列缺 心俞 神門 中脘 三里 少海,
又灸百會.

列缺：太陰肺 絡 四總穴-頭項 任脈交會穴
宣疏肺熱 疏經通絡 通利咽喉胸膈

心俞：太陽膀胱 心俞 養心安營 清神寧志
調理氣血

神門：少陰心 俞 土 安心寧神 清化涼營
清心熱 調氣逆

中脘：任脈 胃之募穴 腑會穴 和胃氣 化痰
滯 利中焦 調升降

足三里：陽明胃 合 土 六腑下合穴 四總穴
中風七處穴 理脾胃 調中氣 和腸

消滯 祛風化濕通調經絡 調和氣
血 扶正培元 祛邪防病 強健脾胃

少海：少陰心 合 水 疏心氣 清包絡 寧神
志 化痰涎

百會：督脈 手足三陽經與督脈之會穴 熄
肝風 清神志 回陽固脫 舉陽氣下陷
清熱開竅

(5) 失志痴騃 取神門 中衝 鬼眼 鳩尾 百會 後
谿 大鍾.

神門：少陰心 俞 土 安心寧神 清化涼營
清心熱 調氣逆

中衝：厥陰心包 井 木 開竅勞厥 清心退熱
回陽救逆

鳩尾：任脈 絡

百會：督脈 手足三陽經與督脈之會穴 熄

肝風 清神志 回陽固脫 舉陽氣下陷
清熱開竅

後谿：太陽小腸 輸 木 督脈交會 寧心安神
清熱利濕 通督脈 固表分

大鍾：少陰腎 絡 調腎和血 補益精神

(6) 善恐 心惕惕 取然谷 內關 陰陵泉 俠谿 行
間.

然谷：少陰腎 榮 火 陰蹻脈之所生處 退腎
熱 疏厥氣 理下焦

內關：厥陰心包 絡 陰維脈交會 八脈交會
穴 疏三焦 寧心安神 寬胸理氣 和胃
鎮靜鎮痛

陰陵泉：太陰脾 合 水 運中焦 化濕滯 助
膀胱 祛風冷

俠谿：少陽膽 榮 水 清熱 熄風 止痛

行間：厥陰肝 榮 火 泄肝火涼血熱 清下焦
熄風陽

(7) 心澹澹大動 取大陵 三里.

大陵：厥陰心包 俞 土 原 十三鬼穴 清心
寧神 和胃寬胸 清營涼血

足三里：陽明胃 合 土 六腑下合穴 四總穴
中風七處穴 理脾胃 調中氣 和腸
消滯 祛風化濕通調經絡 調和氣
血 扶正培元 祛邪防病 強健脾胃

血門

(1) 衄血 灸 顛會 上星.

顛會：督脈

上星：督脈 十三鬼穴 散風熱 通鼻竅 異名
-鼻衝

(2) 衄 宜灸 大椎 瘕門.

大椎：督脈 手足三陽經與督脈之會穴 消
風散寒 解表通陽 理氣降逆 鎮靜安
神與健腦

瘕門：督脈 督脈與陽維脈之會穴 通經絡
利機關 開神竅 清神志

(3) 衄不止 以三稜鍼於氣衝出血 入愈.

氣衝 : 陽明胃 衝脈所起 舒宗筋 散厥氣 調膀胱 和營血

(4) 衄血 取 上星 風府 瘡門 合谷 內庭 三里 照海.

上星 : 督脈 十三鬼穴 散風熱 通鼻竅 異名 -鼻衝

風府 : 督脈 足太陽膀胱督脈與陽維脈會穴 祛風邪 理機關 清神志 泄氣火

瘡門 : 督脈 督脈與陽維脈之會穴 通經絡 利機關 開神竅 清神志

合谷 : 陽明大腸 原 四總穴 發表解熱 消風解表 清泄肺氣 通降腸胃 鎮痛安神 通經活絡

內庭 : 陽明胃 榮 水 通降胃氣 和腸化滯 理氣鎮痛

足三里 : 陽明胃 合 土 六腑下合穴 四總穴 中風七處穴 理脾胃 調中氣 和腸消滯 祛風化濕通調經絡 調和氣血 扶正培元 祛邪防病 強健脾胃

照海 : 少陰腎 八脈交會穴-陰蹻脈起始穴 痛經火熱 泄火少氣 清神志 利咽喉

(5) 吐血 取 風府 大椎 膻中 上脘 中脘 氣海 關元 三里.

風府 : 督脈 足太陽膀胱督脈與陽維脈會穴 祛風邪 理機關 清神志 泄氣火

大椎 : 督脈 手足三陽經與督脈之會穴 消風散寒 解表通陽 理氣降逆 鎮靜安神與健腦

膻中 : 任脈 氣會穴 心包絡募穴 調氣降透 清肢化痰 寬胸利膈

上脘 : 任脈 手太陽小腸與任脈之會穴 理脾胃 化痰濁 疏氣機 寧神志

中脘 : 任脈 胃之募穴 腑會穴 和胃氣 化痰滯 利中焦 調升降

氣海 : 任脈 調氣益元 培腎補虛 和營血理調經 溫下焦 祛濕振陽固精

關元 : 任脈 小腸募穴 足三陰與任脈之會穴 三焦之氣生穴 培腎固本 補益元氣 回陽固脫 溫調血室精宮 祛陰寒 濕陰冷 分清別濁 調元散邪

足三里 : 陽明胃 合 土 六腑下合穴 四總穴 中風七處穴 理脾胃 調中氣 和腸消滯 祛風化濕通調經絡 調和氣血 扶正培元 祛邪防病 強健脾胃

(6) 吐血 灸 大陵.

大陵 : 厥陰心包 俞 土 原 十三鬼穴 清心寧神 和胃寬胸 清營涼血

(7) 嘔血 取 上脘 大陵 郄門 神門.

上脘 : 任脈 手太陽小腸與任脈之會穴 理脾胃 化痰濁 疏氣機 寧神志

大陵 : 厥陰心包 俞 土 原 十三鬼穴 清心寧神 和胃寬胸 清營涼血

郄門 : 厥陰心包 郄 寧心安神 寬胸理氣 通絡止血

神門 : 少陰心 俞 土 安心寧神 清化涼營 清心熱 調氣逆

(8) 關脈扎 大便出血數斗者 以膈俞傷故也 宜灸膈俞.

膈俞 : 太陽膀胱 血會穴 四花穴

(9) 虛勞吐血 灸 中脘三百壯 又吐血唾血 灸肺俞隨年壯. 又口鼻出血不止 名腦衄 灸上星五十壯

中脘 : 任脈 胃之募穴 腑會穴 和胃氣 化痰滯 利中焦 調升降

肺俞 : 膀胱經 肺俞穴 調肺氣 補勞損 清虛熱 和營血

上星 : 督脈 十三鬼穴 散風熱 通鼻竅 異名 -鼻衝

(10) 下血不止 量臍心與脊骨平於脊骨上灸七

壯卽止.

命門：督脈 培元補腎 固精止滯 舒筋和血
疏經調氣 強健腰脊

Ⅲ. 考 察

神門에 나타나는 7가지 침구 경혈의 내용은 癲症, 癇症, 狂症의 部類와 健忘症 및 두려움으로 인한 심장질환 증상으로 3가지 분류가 된다. 먼저 癲, 癇, 狂症은 火가 위로 熾盛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火는 痰이 있어서 火로 발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합하여 痰火라 자주 칭하며, 또한 癲癇病의 주요 원인을 痰, 火, 驚이라 한다. 위로 火가 잘 뜬다는 것은 하복부에 水기운이 부족하여 치솟는 火를 제어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어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形象論은 望問聞切의 진단에 모두 부합하는 치료방법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望診에서는 얼굴의 생김새를 보고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발달시켜 놓았다⁷⁾. 科라는 개념은 형상의학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의 형태를 보고서 구분한다. 그 중에서도 神科는 역삼각형의 얼굴형, 精科는 둥근 얼굴, 氣科는 사각형 혹은 관골이 돌출된 마름모형의 얼굴, 血科는 삼각형 혹은 긴 둥근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각각의 얼굴 형태는 기운의 형태를 반영하고 이에 따라 생리와 병리적인 현상이 결정된다. 神科는 얼굴의 생김새가 역삼각형으로 생겼고, 臟腑로는 心에 배속되며, 火가 잘 뜨는 形象이다. 즉 위로 떠서 분출되는 기운이 역삼각형의 상을 만들어 내어 그것이 얼굴에 표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운이 위로 뜨기 쉬우므로 정상적으로 생리적인 활동을 하려면 기운이 안정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病理는 火가 위로 솟거나, 기운이 위로 뜨게 되면 생기므로

七情이 鬱結되거나 痰火가 발생하면 생긴다. 그래서 주로 火가 잘 뜨는 특성이 있고, 머리 쪽으로 기운이 몰리므로 병이 오면 神이 민감한 것을 감안하여 정신적인 면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⁸⁾.

神門의 鍼法 1번을 보면, 東醫寶鑑에서는 癲癇에 陽蹻脈과 陰蹻脈을 사용하였다. 陽蹻脈은 全身의 陽脈을, 陰蹻脈은 全身의 陰脈을 서로 교통시키고 관장한다. 陽은 낮, 밤은 陰에 해당하므로 기운이 상충되어 양 기운이 발동하면 낮에 심하고, 음 기운이 발동하면 밤에 심하다. 각각의 蹻脈이 시작하는 穴을 사용한다. 또한 申脈과 照海는 각각 膀胱經과 腎經의 穴이기도 하다. 두 경락은 水의 성질을 가진 經絡으로 火를 잘 조절한다. 그리고 百會는 督脈의 穴로 全身의 기운을 조절하고 陽氣가 떨어진 것을 올릴 수 있으며, 神志를 조절하고 淸神開竅하므로 정신적인 면에 고려하여 쓴다. 風池는 中正之官으로 主驚하고 결단을 주관하는 膽經의 穴이며, 申脈은 陽蹻脈의 起始穴로서의 역할을 한다. 申脈, 照海가 水기운을 조절하여 癲癇을 치료하고 百會가 정신작용을 맡아 봄으로써 癲癇에 꼭 필요한 穴이라면, 風池는 膽經의 穴성과 함께 陽蹻脈의 終止穴로서의 역할을 함께 한다. 그러므로 평소 膽이 주관하는 결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風池를 더 적용할 수 있다.

2번 癇病의 經穴 構成을 보면 形象論적으로는 神科나 火體, 鳥類 등의 대상에게 위장 장애가 있으면서 癇症이 생기는 경우라 볼 수 있다. 火體와 鳥類 등도 神科와 마찬가지로 얼굴의 형태를 보고서 분류한 개념이다. 火體는 神科와 비슷한 개념인데, 얼굴이 역삼각형으로 생기고 火가 잘 動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鳥類는 눈, 코, 귀, 입 중에서 눈이 발달한 사람을 말한다. 이때의 눈의 개념은 神이 발달하였다는 개념인데

心이 神을 관장하고 火가 動하기 쉽다. 먼저, 鳩尾穴과 心俞는 心과 연관이 있다. 臟腑相關條文⁵⁾에 보면 膽病으로 癲狂症이 있으면 心을 補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心和 膽은 精神 판단과 연관이 있는 장부이다. 그리고 後谿는 小腸經이고 督脈과 교회하는데, 督脈을 통하므로 小腸의 火와 督脈의 安神시키는 기능까지 함께 고려하였다. 間使는 心包經으로 痰火를 제거하여 心氣를 조절하고 神志를 안정시킨다. 湧泉은 腎經의 井穴로 腎熱이 있을 때 활용하며, 또한 井穴이므로 급성이거나 臟에 병이 든 것으로 생각된다. 陽交는 膽經이고 陽維脈의 郄穴이다. 郄穴은 증상이 급할 때 쓴다. 즉, 이 구성들은 火가 잘 뜨는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대상은 形象論적으로 神科나 鳥類등의 火體라 보여 진다⁹⁾. 足三里와 太衝, 上腕은 모두 소화가 안 될 때 쓸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구성이 陽的인 火를 잡아 주고, 소화기를 보면서 급성적인 것을 처치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이를 볼 때 痰飲 중에서도 食痰 등으로 위장 문제가 있고, 양적인 증상인 열의 증상이 있으면서 급성적으로 온 癩病에 쓸 수 있다.

다음으로 3번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하복부에 기운이 부족한 사람이 머리 쪽으로 질병이 생겼는데 癩症의 형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癲狂은 痰이 위로 치밀어서 생기는 것이 주원인이고, 痰, 火, 驚이 원인이 된 것이 많다. 豐隆은 濕痰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穴이다. 濕痰을 제거하여 神志를 맑게 하는 작용을 한다. 앞의 구성 해석과 비슷하지만 여기서의 특징은 구성 혈들의 장부 상관관계를 볼 때 肝, 大腸, 膀胱, 腎經 위주로 되어 있고, 小腸經으로 火를 다스린다고 보아진다. 肝, 大腸, 膀胱, 腎은 모두 아랫부분에 위치한 장부이다. 또 疝症에 보면 膀

胱氣, 小腸氣, 腎氣로 분류하고 있다. 肝은 疝症과 연관이 있는 하복부 근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經絡이다. 하복부에 힘이 없어서 火가 위로 치미는 사람이나 疝症이 있어 아랫배에서 제어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라 해석된다. 形象論적으로 疝症은 신체 좌우의 균형이 안 맞는 사람에게 많고, 특히 膀胱의 外候인 鬲구멍이나 小腸의 外候인 人中이 비뚤어지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많다고 생각된다¹⁰⁾.

4번에서 健忘은 잘 잊는 것이고,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되어 심해지면 癡呆까지 이른다. 잘 잊는 것은 上焦의 기운이 부족하고 下焦의 기운이 지나쳐서 營血의 작용이 心肺를 영양하기보다는 腸胃에 치우쳐서 神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해 생긴다. 즉, 形象論으로 보면 腸胃의 기운이 센 陽明形들이면서 心肺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¹¹⁾에게 해당될 것이다. 健忘 치료의 穴구성은 上焦쪽에 치우쳐 있다. 더구나 여러 穴을 사용한 후 百會에 灸를 하여 上焦로 陽氣를 끌어 올리는 것을 극대화 하는 점에서 이점은 더욱 확실하다. 腸胃에 쓰이는 氣運을 瀉하기 위해 中腕, 足三里를 사용했고 瀉法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列缺과 心俞, 神門, 少海 등은 心和 肺의 혈들이다. 心, 肺는 上焦중에서도 흉곽에 위치한 臟이다.

5번에서 癡呆는 志를 잃은 것으로 心藏神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이다. 神門, 中衝은 心和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鳩尾는 심장 부위에 위치한 任脈穴이다. 後谿는 督脈과 교회하는 穴이고 大鍾은 腎經의 穴로 補益精神하는 穴성이 있다. 百會는 健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경혈과의 배합을 고려하여 보면, 健忘과 비교하여 증상의 정도가 더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神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穴들로 구성되었으므로 形象論적으로 神科나 火體, 鳥類에게 더 적용된

다고 할 수 있다.

6번의 恐怖는 心腎이 약할 때, 肝膽이 虛할 때, 胃熱이 있을 때 생기는 情志이다. 경혈의 소속으로 살펴보면, 然谷은 腎을, 內關은 心을, 陰陵泉은 脾胃를, 俠谿와 行間은 肝膽을 각각 다스려 준다고 할 수 있다. 가슴 부위가 울렁거리는 것은 이러한 바탕 위에 痰이 動하기 때문이다. 手厥陰心包의 是動病이 心憊憊大動이므로 心包經의 原穴을 쓰면서 痰을 없애는 足三里를 활용하였다. 形象論으로는 痰飲의 形症이 있는 경우에 활용가능하다고 하겠다. 東醫寶鑑에는 痰飲이 걸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대해 곳곳에 언급이 있다. 그 중에서 痰飲外證 條文⁵⁾을 참고해보면, 尺脈의 피부가 고기 비늘 같은 경우, 눈꺼풀과 눈 아래에 검은 잿빛이 돌거나, 적게 먹어도 살빛은 전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¹²⁾.

한편, 血門의 주요 病症은 衄血과 吐血, 嘔血 및 大便出血로 구분된다. 피가 肺로부터 올라오거나 陽明經에 熱이 몰리면 衄血이 나고, 胃로부터 올라오면 吐血이 된다. 形象論의 血科는 얼굴의 형태가 삼각형이거나 긴 둥근형이고, 五臟은 肝에 배속되며, 생리는 둘러싸는 것이고 병리는 瘀血¹³⁾이다. 하지만 衄血이나 吐血같은 경우는 血科의 生理, 病理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火體나 鳥類나 陽明形에 더 많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굳이 血科에게 적용을 한다면 瘀血의 병리 중에서 열로 인해 혈관 밖으로 생기는 瘀血 등 둘러싸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경우를 들 수 있겠지만 衄血이나 토혈은 위로 화가 치솟아서 생기는 기전이 더 많기 때문이다.

1번 처럼 顛會나 上星을 쓰거나 2번 처럼 大椎나 瘰癧門을 쓴 경우는 얼굴 부위의 督脈經上에 熱이나 기운이 몰린 것을 다스리는 의미로 보여진다. 다만 顛會와 上星은 前頭部이고 大椎와 瘰癧門은 後頭部인 차이점이 있다. 前頭部는 陽明

經과 관련이 깊으므로 顛會와 上星은 陽明胃經이 발달하면서 위로 기운이 몰린 形象으로 볼 수 있다. 後頭部는 太陽經과 관련이 깊은데 太陽經은 邪氣를 받아들이는 일차적인 관문이므로 邪氣를 조절하는 경락이다. 또한 瘰癧門은 督脈과 陽維脈이 交會하는 穴인데 陽維脈은 苦寒熱에 쓰이고 大椎는 삼양경이 모두 교회하는 穴이므로 경락적인 의미와 穴性을 볼 때 그러한 조절을 잘못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보여진다. 물론 쓴 위치로 보았을 때 太陽 膀胱經이 발달한 사람¹⁴⁾도 고려해야 한다.

3번 처럼 코피가 멎지 않는데 氣衝을 썼는데 氣衝은 陽明胃經의 穴이면서 衝脈이 기시하는 穴이며, 氣街라고도 하는데 기운이 몰리는 지점을 의미한다. 陽明胃의 기운이 몰려 위로 치솟아 생기므로 氣衝을 출혈시키면 기운이 하강한다.

4번의 경우는 上星과 風府, 瘰癧門은 머리에 있는 혈이고 督脈經上의 穴이다. 合谷, 內庭 및 足三里는 陽明經을 다스리는 穴이고, 照海는 足少陰腎經이면서 陰蹻脈이 시작하는 穴이고 火熱을 내린다. 따라서 1번, 3번, 4번은 陽明胃經이 위주가 되었으므로 陽明胃經이 발달한 陽明形이 코피가 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또 9번의 口鼻出血不止 名腦衄에서는 上星도 썼다. 上星은 督脈經上에 전두부에 위치하면서 異名이 鼻衝이라 불릴 만큼 風熱을 散하고 코에 직접적인 기운 소통을 위해 쓰는 穴이다.

吐血의 원인을 세분화해보면 힘겨운 일을 한 후에 과식하여 생긴 內衄과 술을 마시고 난 후 술독으로 생긴 肺疽와 과식이나 위가 차가워 소화 안 된 것을 토할 때 생기거나 胃口이 찢어졌을 때 생기거나 火病으로 생긴 경우가 있다. 즉, 생활에서 오는 병이다¹⁵⁾. 5번의 경우는 각각의 경우를 다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즉, 風府는 風邪가 침입한 것을 막으므로 肺疽일 경우에 쓸

수 있다. 形象論으로 보면 風人에 적용할 수 있으며, 風人은 얼굴이 각이 지면서 머리 쪽으로 발달한 사람이다.

大椎, 氣海, 關元, 三리는 허약한 것을 補하므로 內衄인 경우에 쓸 수 있다. 形象論으로 보면 얼굴이 길거나 몸이 상하로 길어서 중기가 몸 중간에서 제어를 못하는 사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는 大椎는 督脈經上의 穴이므로 督脈의 주치를 생각할 수 있고, 氣海 關元은 丹田을 의미하므로 원기가 허약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으며, 三리는 陽明胃經이므로 陽明形이나 소화기 계통의 문제 등 여러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上腕, 中腕, 足三리는 胃腸과 관련이 깊으므로 胃가 傷했을 때 적용하는데, 이는 胃腸의 문제이므로 당연히 陽明形에게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穴이다. 大椎는 督脈經에 있고 火를 제어하므로 形象論적으로 火病이 잘 오는 神科, 鳥類나 火體 등의 대상에게 쓸 수 있다.

6번에서 大陵만 쓴 경우는 心包經이고 心の 熱을 식히는 穴이며 原血이므로 吐血의 경우중에서 火病이 있는 대상에게 쓸 수 있다. 火病은 形象論적으로 보아 神科 혹은 鳥類나 火體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또 痰飲이 화를 잘 일으키므로 확대 해석하면 痰飲의 외후가 보이는 사람에게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7번에서도 마찬가지로 大陵 외에 心包經의 郄門과 心經의 神門이 들어간 것은 火가 급성적일 때 고려해 볼 수 있으며 上腕으로 胃까지 겸해서 보고 있다. 心經과 心包經을 위주로 본다면 5, 6번과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上腕을 위주로 해서 본다면 陽明形이 스트레스 등으로 급작스럽게 열이 위로 치솟아 나는 嘔血로 볼 수 있다.

虛勞해서 吐血하는 경우에는 胃를 특히 고려

해야 하므로 中腕에 灸를 하여 기운을 補한 것으로 생각된다. 中腕은 몸의 가운데 있어 中氣를 조절한다는 의미가 크다. 形象論적으로 얼굴이 길거나 몸이 상하로 길면 中氣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虛勞인 사람은 말이 기운이 없거나 눈에 광채가 없는 등 얼굴과 행동에서 표시가 난다. 그 중에서 中氣가 부족하면 中腕을 다스려야 한다. 中氣는 또 胃氣를 1차적으로 의미하므로 吐血에 中腕을 쓰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8, 10번에서 下血이 되어 아래로 피가 흐른다는 것은 아래를 틀어막는 기운이 不足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맥은 失血 때의 맥인 芤脈이 나타난다. 膈愈는 血會穴로 血에 병이 든 경우에 두루 통용되며, 虛勞한 症狀에 應用이 가능하다. 下血이 그치지 않으면 元陽이 부족해지므로 命門에 灸를 하여 元陽을 회복시킨다. 상부로 血이 치솟는 코피나 吐血 등은 火의 기운이 센 경우가 더 합당하지만 下血같이 統血하지 못해 血이 새는 것은 血科의 병리에 해당한다. 血科가 虛勞한 증상이 있어 하혈이 될 때 위의 경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形象에 따른 經穴 선택의 연구 일환으로 東醫寶鑑 神門과 血門의 鍼灸 부분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癩癧 鍼法은 火가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제어하는 방법이 위주이므로 神이 발달하여 火가 치솟기 쉬운 형상인 神科가 주로 해당되고 부수적으로 火體, 鳥類가 해당되며, 더불어 하복부가 허약하여 火가 위로 치밀는 사람에게 잘 적용되는 혈로 구성되어 있다.
2. 健忘 鍼法은 腸胃 기운이 세고 心肺가 부

족한 사람에게 해당되며, 癡呆 鍼法은 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선혈을 하였으므로 神科, 火體, 鳥類에게 더 적용되고, 心惕惕 條文의 鍼法은 痰飲의 증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취하였으므로 痰飲 形證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3. 血門의 衄血, 吐血은 瘀血의 내용보다는 火로 인하여 出血하는 기전이므로, 그 鍼法은 火病이 잘 오는 火體, 鳥類, 神科나 陽明胃經이 발달하여 열이 많은 陽明形에 더 많이 적용되며, 또한 吐血은 風이 잘 動하는 風人에도 適用 가능하다.
4. 더불어 虛勞吐血 鍼法은 中氣不足 形象에 적합하며, 下血不止는 血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穴들로 구성이 되었으므로 虛勞한 血科의 鍼法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한경식, 박성식. 체질에 따른 침치료를 위한 문헌적인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 13(3) : 8-14.
2. 최병일, 고병희, 송일병. 체질에 응용되는 침치료법에 대한 고찰. 사상학회지. 1989 ; 1(1) : 183-8.
3. 강경화, 김경철, 백근기, 이용태. 형상침법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 ; 17(5) : 1157-76.
4.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2기 졸업준비위원

- 회 편. 정선 한국의 체질이론. 서울 : 대성문화사. 1994 : 183-225.
5. 동의보감국역위원회. 대역동의보감. 서울 : 법인문화사. 1999 : 179-234.
6. 전국한 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침구학. 서울 : 집문당. 1988 : 309-10, 323-5, 327-8, 376-7, 382-4, 387-8, 391-2, 407-9, 425-6, 429-31, 440-3, 478-84, 523, 526-7, 536-8, 540-3, 545-8, 571-8, 632-3, 649-51, 657, 666-8, 677-8, 691-2, 699-703, 705-9, 722-5, 730-7.
7. 김경철, 이용태. 장부상통과 지산도표의 이해.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 ; 17(3) : 617-23.
8.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 서울 : 지산출판사. 1996 : 63-7.
9.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 서울 : 지산출판사. 1996 : 168-70.
10.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6. 서울 : 지산출판사. 1996 : 229-30.
11.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2. 서울 : 지산출판사. 1996 : 292.
12. 조성태. 생긴대로 병이 온다. 서울 : 명상. 1998 : 302-5.
13.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4. 서울 : 지산출판사. 1996 : 359-360.
14.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5. 서울 : 지산출판사. 1996 : 57-63.
15.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1. 서울 : 지산출판사. 1996 : 222-4.